

[보도자료]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양로원 어르신 위해 최신형 세탁기·냉장고 기부하고 텃밭 가꾸기 봉사 진행

2024. 9. 10.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임직원들이 9일 경기도 화성시 '성녀 루이제의 집' 양로원에서 기부 및 봉사활동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지난 9일 양로원 성녀 루이제의 집 방문해 최신형 대형가전 기부 및 텃밭 가꾸기 봉사
- CLS, “전국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 위한 기부 및 봉사활동 지속해 나갈 것”

2024. 09. 10. 서울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양로원에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대형가전 기부와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CLS는 앞으로도 기부 및 봉사를 정기활동으로 삼는 등 지속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LS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양로원 성녀 루이제의 집을 방문해 삼성전자 세탁기, LG전자 건조기, 스타리온 대형냉장고 등 최신형 대형가전을 기부하고 다가오는 겨울 김장을 위한 배추 모종을 심는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홍용준 CLS 대표이사를 비롯한 CLS 임직원 20여명이 합심해 어르신들의 단체생활에 필수적인 대형가전을 기부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돕고자 텃밭 가꾸기에 나선 것이다.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이사(가)가 9일 경기도 화성시 '성녀 루이제의 집' 양로원에서 대형가전 기부 기증식을 기념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CLS 노사협의회가 뜻을 모아 기획했다. 쿠팡과 CLS의 물류 인프라와 로켓배송 역량을 활용해 지역 사회취약계층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에 후원금 지원이 넉넉치 않은 양로원의 노후화된 시설 교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돕기로 마음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CLS의 작은 도움으로 보다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힘이 되어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임직원들이 배추 모종을 심는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성녀 루이제의 집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원으로 수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어르신들이 보다 편하게 지내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CLS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의 이웃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